

#### 4) 독립혁명기를 전후한 미국 소설

미국 식민지 기간은 종교적 열정을 담은 시나 설교문과 같이 재미가 배제된 종교문학의 시대라고 할 수 있다. 독립전쟁을 거치면서 미국은 독립국가에 걸맞은 다양한 문화와 시장을 갖추게 되었다. 독립전쟁 이전의 미국은 대중문화가 확산될 수 있는 인프라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였다. 식민지의 넓은 지역에 비해 도로망은 부실했고 교육받은 인구의 수도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 시와는 달리 소설은 대중적인 소비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식민지의 이러한 열악한 상황에서 미국적인 특징을 담은 창의적인 소설문학이 탄생하기는 어려웠다. 이런 이유외에도 청교도적 가치관은 소설의 허구성과 쾌락적 요소를 반대했기 때문에 미국 땅에서 미국적인 소설의 탄생은 상당히 느리게 진행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람들의 읽는 즐거움을 충족시키는 빠르고 편리한 방법은 영국에서 유행한 인기 있는 소설을 개작하여 소개하는 것이었다. 18세기 후반 미국소설 내용과 형식면에서 영국의 소설을 모방한 상태이기는 하지만 이후에 다가올 미국소설의 개화기를 예비하고 있었다.

##### (1) 윌리엄 힐 브라운(William Hill Brown, 1765-1793)

윌리엄 힐 브라운은 1765년 보스턴에서 출생했다. 그의 인생행적에 대한 기록은 별로 남아 있는 것이 없지만 그가 1789년 집필한 『동정의 힘』(*The Power of Sympathy*, 1789)이 미국 최초의 소설로 평가 받으면서 소설사적 관점에서 그와 그의 작품이 의미를 가진다. 최초의 미국소설로 인정받는 『동정의 힘』은 그 내용과 분위기가 근대 소설의 효시로 평가받았던 사무엘 리차드슨(Samuel Richardson)의 『파밀라』(*Pamela, or Virtue Rewarded*, 1740)를 모방하고 있다.

『동정의 힘』은 대표적인 감성소설로 분류되는데, 감성소설은 18세기의 냉철한 이성주의에 대한 반발로 타인의 슬픔에 대한 독자의 연민을 이끌어내는데 초점을 맞추어서 이야기의 내용과 분위기를 전개한 소설을 일컫는다. 소설의 남자 주인공인 부유한 방탕아 해링턴(Harrington)은 아버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청순한 해리엇(Harriot)을 유혹해서 자신의 정부로 만들고 싶어한다. 해리엇은 해링턴의 불순한 의도를 알고 그것을 거부하지만 해링턴이 진심으로 그녀를 사랑하게 되자 그들은 약혼을 한다. 그러나 해리엇과 해링턴의 가족사의 비밀이 밝혀지기 시작하는데, 해링턴과 해리엇은 어머니가 다른 자매인 것이 드러난다. 이 사실을 알게 되자 이들은 절망한다. 해리엇은 회복할 수 없는 병에 걸려 죽게 되고, 해리엇이 죽자 해링턴 역시 자살하게 된다.

##### (2) 찰스 브록든 브라운(Charles Brockden Brown, 1771-1810)

찰스 브록든 브라운은 1771년 필라델피아에서 출생했다. 학창시절에 그는 지리와 역사를 특히 좋아했고 주위의 걱정을 끼칠 정도로 독서에 지나치게 몰입했다. 그의 부친은 그가 법률가가 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는 법률공부를 하기도 했지만 문학에 대한 열정을 거둘 수는 없었다. 그는 법률공부를 그만두고 잡지사 등에 원고를 팔아서 생계를 이어갔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찰스 브록든 브라운은 미국 최초의 직업작가라고 할 수 있다.

찰스 브록든 브라운은 영국의 고딕 소설들에 매료되었는데, 당시 고딕 소설의 선구자적 역할을 했던 앤 래드클리프(Ann Radcliffe, 1764-1823)나 윌리엄 고드윈(William Godwin, 1756-1836)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이들의 영향으로 찰스 브록든 브라운은 미국적인 고딕 소설을 개발하려고 노력했다. 그는 영국의 고딕 소설의 배경이나 내용을 차용하면서도 미국적인 배경과 어두운 감수성을 소설을 통해 구현하고자 했다. 그는 생계를 해결

하기 위해 2년 동안 무려 4편의 고딕 공포소설을 썼다. 그가 집필한 『월랜드』(Wieland, 1798), 『아서 머빈』(Arthur Mervyn, 1799), 『오먼드』(Ormond, 1799), 『에드가 헌틀리』(Edgar Huntley, 1799)는 이후 미국의 “어둠의 힘”(Power of Blackness)을 탐색했던 허만 멜빌이나 나다니엘 호손과 같은 작가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다.

『월랜드』 종교적 광신과 정신분열적 상황을 다루고 있는데 실제 사건을 소재로 했다. 주인공 데오도르 월랜드(Theodore Wieland)는 캐더린 플레엘(Catherine Pleyel)과 결혼하여 월랜드 가문의 땅에 정착한다. 유럽에서 온 캐더린의 오빠인 헨리가 이들 부부를 방문한다. 월랜드와 헨리는 철학과 종교에 대해 서로 논쟁을 한다. 이들의 논쟁은 곧 카윈(Carwin)이라는 정체불명의 남자와 또 사람의 실체가 없는 말소리의 등장으로 중단된다. 카윈은 헨리와 월랜드가 벌이는 토론에 참여하고 싶어 한다. 카윈과 함께 등장한 실체가 없는 목소리가 말하길 헨리의 약혼녀가 유럽에서 죽었다고 하는데 이는 사실로 밝혀진다. 그러자 월랜드는 이 소리를 신의 목소리 혹은 신성한 어떤 것이라 확신을 한다.

월랜드의 동생 클라라는 헨리와 사랑에 빠진다. 그런데 헨리는 클라라와 카윈이 대화하는 것을 엿듣게 되는데 그 내용이 클라라가 순결을 잃었다는 것이었다. 그러자 헨리는 클라라를 거부한다. 한편 월랜드는 그 목소리가 신의 음성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신이 자신에게 자신의 여동생 클라라와 헨리를 죽이라고 명령한다고 믿는다. 이웃의 도움으로 클라라는 간신히 목숨을 구하게 되고, 월랜드는 붙잡혀 감옥에 갇힌다. 카윈은 자신이 복화술사이고 클라라의 가족이 들었던 목소리가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라 고백한다. 카윈은 자신이 클라라에게 끌렸기 때문에 헨리가 그녀로부터 멀어지게 했다고 한다. 그러나 월랜드가 가족을 살해하고자 한 것과는 자신은 무관하다고 주장한다. 월랜드가 감옥에서 탈출해서 클라라를 죽이기 위해 다시 돌아왔을 때 카윈은 마치 신인 것처럼 월랜드에게 말함으로써 클라라를 구한다. 그리고 카윈이 월랜드에게 진말을 이야기하자 월랜드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살을 한다.



Charles Brockden Brown<sup>1)</sup>

##### 5) 독립혁명기를 전후한 미국의 드라마

미국 드라마의 탄생은 시사 소설에 비해 상대적으로 늦게 시작되었다. 시나 소설에 비해 드라마는 극장이라는 대규모의 시설과 공연을 가능하게 해 줄 어느 정도의 관객층도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18세기 후반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동부의 도시를 중심으로 극장이 생겨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 시기를 미국 드라마의 탄생기로 보는 것이 타당할 듯하다.

1) [http://en.wikipedia.org/wiki/Charles\\_Brockden\\_Brown](http://en.wikipedia.org/wiki/Charles_Brockden_Brown)

(1) 토마스 고프리의 『파티아의 왕자』 (Thomas Godfrey's *The Prince of Parthia*)

토마스 고프리(1736-1763)는 필라델피아에서 활동했던 미국의 시인이자 극작가였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후 시계공의 도제가 되기도 했다. 1767년에 그가 집필한 『파티아의 왕자』는 미국 최초의 드라마로 평가받고 있다. 이 작품은 셰익스피어와 크리스토퍼 말로우의 작품을 따라 한 흔적이 많았지만, 미국인에 의해 작품이 집필되어 전문극단에 의해 극장에서 공연된 최초의 작품이라는 점에서 역사적 의의가 높다.

『파티아의 왕자』는 한 여자를 두고 고귀한 신분의 두 형제가 격돌하는 전형적인 애정영웅비극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왕자 바르다네스(Vardanes)는 아버지 아르타바누스(Artabanus) 왕이 형제인 아르사세스(Arsaces)에게 등을 돌리도록 모략을 꾸민다. 그 이유는 아르사세스가 전쟁에서 이겨 사랑을 받는 것에 대한 질투이기도 했고, 아르사세스가 자신이 좋아하는 에반스(Evanthe)라는 처녀의 사랑을 얻은 것에 분노했기 때문이기도 했다. 바르다네스의 모략은 성공을 거두어 부왕은 아들인 아르사세스를 감옥에 가두어 버린다. 그러나 동생인 왕자 고타르제스(Gotarzes)가 군대를 이끌고 형 아르사세스를 구하기 위해 전쟁을 일으킨다. 전쟁이 계속되는 동안 에반스는 아르사세스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독약을 마시고 자살을 한다. 그러나 그 소식은 한탄 소문일 뿐이었다. 아르사세스가 죽어가는 에반스에게 달려가지만 그녀는 숨을 거둔다. 그러자 아르사세스 역시 운명을 한탄하며 자살을 한다.



Thomas Godfrey<sup>2)</sup>

(2) 로얄 타일러의 『대비』 (Royall Tyler's *The Contrast*)

로얄 타일러(1757-1826)는 보스톤에서 출생했다. 하바드 대학에서 수학했고, 졸업 후에는 민병대에서 복무하기도 했다. 후일 변호사가 되어 사무실을 열기도 했다. 존 아담스(John Adams)의 딸 애비(Abby)와 사랑에 빠져 약혼을 하기도 했으나, 천성적으로 활발하고 즉흥적인 애비는 어머니를 따라 유럽으로 가 버리고 나중에 파혼을 통보했다. 한동안 절망에 빠져 있기도 했지만, 타일러는 자신을 위로하는 매리 팔머(Mary Palmer)와 결혼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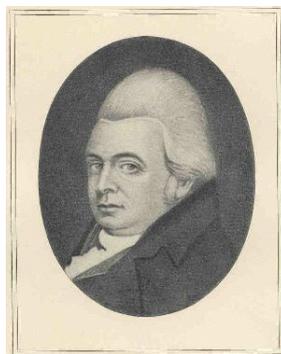
로얄 타일러는 후일 뉴욕에서 영국의 풍습희극을 보았으며 이에 영감을 얻어 『대비』 (*The Contrast*, 1787)라는 작품을 썼으며, 이 작품은 전문 극단인 아메리칸 컴패니(American Company)에 의해 공연되었다. 더구나 『대비』의 내용은 미국과 영국의 문화적 특징들을 비교함으로써 발생하는 희극적 상황을 다루었기 때문에 이전의 다른 연극보다도 미국적인 독창성이 풍부한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런 이유로 『대비』는 전문극단에 의해 공연된 사실상 제대로 된 최초의 미국 연극으로 여겨진다.

『대비』의 여주인공인 마리아(Maria)는 아버지가 정해진 짝인 딘플(Dimple)과 결혼할 처지에 놓여있다. 딘플은 마리아의 아버지의 사업파트너의 아들인데 과장된 격식으로 치장한 영국식 문화에 빠진 속물이면서 바람둥이다. 딘플은 마리아와 결혼을 양쪽 집안

2) [http://famouspoetsandpoems.com/poets/thomas\\_godfrey/biography](http://famouspoetsandpoems.com/poets/thomas_godfrey/biography)

끼리 약속한 사이임을 인정하면서도 매력적인 샬로트(Charlotte)와 돈 많은 레티샤(Letitia)를 유혹한다.

한편, 샬로트의 오빠인 맨리(Manly)가 등장하는데, 맨리는 독립혁명 전쟁에 참전했다 돌아온다. 그는 당시의 대도시의 세련된 의상을 입고 있지 않고 촌스러운 군복을 입고 나타난다. 맨리는 세련되지는 못했지만 정직하고 자연스럽다. 마리아는 점차 딤플의 속물적인 근성과 바람기에 질리게 되면서 딤플과는 달리 담백한 성품의 맨리에 마음을 빼앗기게 된다. 돈에 대한 집착이 강한 마리아의 아버지는 딸과 딤플의 정해진 결혼을 강력하게 주장하지만, 딤플이 도박으로 많은 돈을 잃었다는 소식을 듣자 그에게 딸을 줄 수 없다고 결심한다. 그러던 차에 마리아가 맨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결국 이들의 결혼을 허락하게 된다.



Royall Tyler<sup>3)</sup>



『대비』의 표지<sup>4)</sup>

3) <http://www.csustan.edu/english/reuben/pal/chap8/tyler.html>

4) [https://library.brown.edu/guide/img/061\\_768px.jpg](https://library.brown.edu/guide/img/061_768px.jpg)